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 전산화 실현’

-의료정보시스템(MEDIOS)-

이상덕

1. 개요

본 연구는 병원의 전산화가 병원 고유의 업무인 환자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수반해야 하는 행정 및 진료시의 사무처리에 대한 업무량을 감소시켜 병원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계,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는 환자의 병원내 체재시간을 단축시키고 각 부서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료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의 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기의 병원전산화가 진료비계산 등의 사무업무의 간소화에 주력하였으나, 지금은 진료를 위한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의료전산 패키지인 MEDIOS(Medical Information Online System)가 최초로 소개된 이후 국내 의료정보 분야는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2. 배경

1977년 의료시책의 일환인 의료보험의 실시는 국가가 일부 진료비를 부담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는 수혜

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만큼 진료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수혜자의 보험진료비 청구는 병원의 업무량을 증대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각병원에서는 진료비의 정확하고 신속한 청구를 위한 전산화의 요구가 절실해졌고, 국내 실정에 맞는 병원전산화의 필요성을 각 병원이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나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과제였다.

MEDIOS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 시책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성기수 소장님의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전산화 개발이 시작되었다.

3. 과제 수행에 있었던 일

병원관리시스템 패키지 개발의 시작은 패키지에 대한 이름짓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진들이 나름대로 지어낸 이름이 무려 25종류에 달하였고 여기서 연구진의 투표로 인하여 5종이 선정되었으며, 성기수 소장님과 김봉일 박사가 최종으로 MEDIOS를 선정하였는데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 이름은 MEDUSA였다. MEDUSA는 해파리 이름이라는 지적과 당시 그리스 신을 소재로 한 MEDUSA란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되고 있었는데, 병원시스템 패키지 이름에 영화 제목이 사용된다는 것이 어색하다 하여 최종적으로 MEDIOS가 선정되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앞날이 밝다는 연구진의 공통된 생각으로 유명한 운명철학관에 가서 이름 짓기를 의뢰해 보자는 우스운 제안도 회의자리에서 나왔을 정도로 연구진의 병원시스템 개발에 대한 애정과 각오는 대단하였다. 어쨌든 최종 선정된 MEDIOS라는 패키지명은 그 이후 전국의 병원 관계자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개발된 병원관리 시스템이고 당시 서울대 병원이 일본 FACOM과 기술 제휴로 병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백병원 역시 금성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으로 우리 연구소는 경희의료원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국내 병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구진의 노력으로 1년 반만에 전산시스템 가동에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이후

MEDIOS라는 패키지를 개발하여 처음으로 중앙대학부속병원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인스톨 시켰다.

경희의료원의 1년 반의 소요기간에 비해 단지 3개월만에 중앙대학부속병원의 MEDIOS 인스톨 성공은 획기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은 이단형 부장의 지독한 밀어부침과 전 연구진의 자존심을 건 오기의 대결로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패키지를 인스톨 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가치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 결과 중앙대 병원에 MEDIOS가 인스톨 되자마자 바로 고려병원과의 후속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MEDIOS 패키지의 성능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었다. 이후 순천향대학부속병원, 원자력병원, 강남시립병원, 경북대병원 등에 차례로 MEDIOS 패키지를 인스톨 시켰으며 '86 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 및 '88 올림픽게임 선수촌병원에 MEDIOS를 인스톨시킨후 1988년 급기야 33개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에 MEDIOS를 일괄 인스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열악한 경영조건 아래서 경영 쇄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전산화 요구를 내무부 공기업과로 부터 의뢰받은 성기수박사님과 김봉일 부장은 최소한의 비용성 경비만을 산정하여 (약 5억원) 최단시일내 이 거대한 Project를 성공시킨다는 의지로 6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 MEDIOS Install 시켰으며,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성공적인 전산화로 인하여 이듬해 MEDIOS는 과기처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4. 결론

여하튼 MEDIOS라는 이름 덕택에 또 성기수소장님의 정확한 판단력, 김봉일박사의 BEST 정신, 그리고 이단형 박사의 불굴의 추진력과 전 연구진의 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 의료 산업계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겼음에 틀림없고, 이 여세를 몰아 최초로 국산 Computer인 TICOM-II에 MEDIOS-II를 이식시키기 위해 도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MEDIOS가 발전해 나가리라는 기대감을 숨길 수 없다.

* MEDIOS 인스톨 리스트

- 경희대학부속 경희의료원
- 중앙대학부속 성심병원
- 고려병원
- 순천향대학 부속 순천향의료원
- 한국 원자력병원
- 지방공사 강남시립병원
- 경북대학 부속 병원